

3-2 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44-48

말씀 제목: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4-5)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들을 만들어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한 예언자들이 세상을 향해 말한 예언들과 자신들이 꿈이나 직접 계시들을 통하여 받았다고 하는 예언들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 다무스 같은 유명한 사람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슨 만화에 나오는 것들이 마치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양 미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 생각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세운 선지자들의 예언만이 참된 예언이며 반드시 이루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딸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눅 24:44-45)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우실 자신의 왕국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왕국)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아버지께서 세우실 왕국을 항상 먼저 구해야 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장차 자신의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편 기사를 통하여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가운데에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시 96:10-13)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불이 그 앞에 나와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께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시 97:1-9)

“은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말하며 노래하라.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시 98:4-9)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시 99:1-5)

이때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임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라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시 100:1-5)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땅을 함께
심판하고 함께 통치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먼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롬
8:14-18)

이 엄청난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8:19-26)

아멘! 할렐루야!